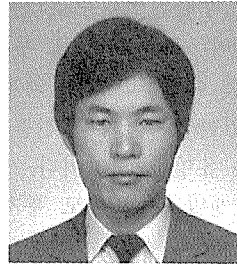


# 소련의 대외무역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 성 환  
전경련 국제부 선임조사역

## 1. 머리말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의 대소진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경제교류는 최근 들어 교역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합작투자, 자원개발, 기술교류 등으로 협력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소련이 지니고 있는 방대한 경제규모나 무한한 개발잠재력,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들이 소련진출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면밀한 사전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봄에 편승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도 강하다. 소련이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도입했다고는 하나 지난 70여년간 유지되어온 사회주의체제와 계획경제의 뿌리가 여전히 깊고 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무리한 진출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앞으로 한·소간 교역이 빠른 속도

로 증대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련의 최근 대외무역동향과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소련의 대외무역체제 변화

1964년부터 1982년까지 18년간의 브레즈네프 정권하에서 소련경제는 심각한 정체상태에 빠져 들었다. 브레즈네프 집권초기에 6~7%에 달했던 연간 경제성장률은 말기에 들어 3%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경제회복 여부가 소련의 체제유지에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1985년에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경제재건을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치를 내걸고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그 기본방향을 국가적난제의 해결에는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되 경제효율화를 위해서는 하부에 있는 각기업에 자주권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자금의 자기조달제가 채택되고 기업운영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대외경제관계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1986년 9월에 외국무역에 관한 조직과 권한이 개편되어 대외경제국가위원회(GVK)가 설치됨과

동시에 그때까지 외국무역성 산하에서 무역을 독점해오던 외국무역공단(FTO) 외에 40개 업종별 부처와 70개의 생산기업에 대해서도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 결과 동일상품은 단일무역창구가 취급하는 무역의 국가독점형태가 무너지고 서방의 자유무역체제에 보다 가까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대외무역제도를 개편한 목적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자원에 주로 의존했던 외화획득재원을 국제유가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다른 수출상품을 육성함으로써 보완하자는데 있었다. 이와 함께 무역공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밖에 없었던 생산기업을 직접 외국상품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87년 6월에는 국유기업법을 제정하여 모든기업이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이행되고 개별기업이 획득한 외화의 사용권이 자유화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부터는 전기기업에 직접 외국과의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직접무역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등록제, 특정상품의 수출입 인허가·할당제, 수출입하물의 통관검사 등 많은 규제가 따르지만 결국은 소련의 대외무역의 문호는 크게 넓어졌다고 하겠다.

### 3. 소련의 대외무역 동향

소련의 공식적인 무역통계는 매년 하반기에 발간되는 「소련외국무역통계집」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 그 기초적인 수치는 대개 1월말경 「프라우다」지를 비롯한 소련의 주요일간지에 전년도 경제실적의 일부로서 게재된다.

금년도 1월 28일자 「프라우다」지에 실린 소련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1989년도 소련의 대외무역총액은 1,348억 루블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이를 공식환율인 1루블당 1,586달러로 계산하면 약 2,195억 달러가 된다. 이 가운데 수출은 682억 루블로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수입은 702억 루블로 7.9%나

증가했다.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대폭 상회한 결과 소련의 무역수지는 1976년 이래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처럼 무역수지가 악화된 원인은 소련의 3대 주종수출상품인 석유, 금, 무기의 국제가격이 크게 떨어진데다 수출량마저 감소한 반면, 심각한 물자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으로부터의 생활필수품과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9년에는 기업의 직접교역에 의한 출하분을 포함한 바터방식의 무역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현물 교환적 성격을 지닌 이 방식의 무역에서 국가적 중요 상품으로 취급되는 등유, 철광석, 강관, 철강제품 등이 수출되고 그 댓가로 소비재가 주로 수입되었다는 데서 소련의 생활물자부족과 외환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지역별 무역구조를 보면 전통적으로 주요한 무역상대국인 사회주의제국과의 교역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9년도 사회주의제국과의 무역액은 865억 루블로 총무역액의 6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6년의 66.8%, '87년의 67.0%, '88년의 65.3%에 비해 대폭 낮아진 숫자이다.

이러한 경향은 코메콘 역내국가와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행해지던 소련의 석유수출이 상당부분 서방국가로 전환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액은 수출입 모두 크게 신장하여 전년 대비 14.8% 증가한 528억 루블을 기록했다.

1989년도의 목표대비 수출실적은 약98% 였으나 특히 경화베이스에 의한 수출은 9%나 목표에 미달했다. 소련의 대사회주의국가 수출은 양국간 청산계정협정에 기초하여 TR이라 불리는 이체가능 루블로 결제되며 당사국간에만 적용될 뿐 태환성은 없다. 따라서 경화베이스에 의한 수출이 크게 부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련의 실질적인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련의 수출상품구성을 보면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연료와 전력, 그리고 목재·펄프 등이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이 기계·설비·수송장비로 비중은 약 16% 정도이다.

한편 수입의 목표달성은 99%로 이 가운데 기계·설비의 수입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으나 식료품·의약품·기초소비재의 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수입상품구성을 보면 기계·설비·수송장비가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을 비롯한 식품 및 동원료가 약 17%, 소비재가 약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23%나 급증하여 무역수지적자의 큰 원인이 되었다.

소련의 대외무역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제도개혁의 과정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두드러진 것으로는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수출에의 지나친 의존, 루블화의 태환성 결여, 그리고 가격구조의 왜곡을 지적할 수 있다.

소련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자원의 비중은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기 이전인 1985년에는 무려 52.7%에 달했으나 이후 그 비중이 매년 저하되어 1989년에는 40% 수준까지 낮아졌다. 에너지자원은 소련의 경제핵심원으로서 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대서방수출의 거의 2/3를 에너지자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원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86년부터는 경화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량이 계속 늘리고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어 대체 수출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소련의 공업제품은 품질, 성능, 디자인, 납기, 애프터서비스 등에 있어 서방의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다. 공업제품가운데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기계·설비·수송장비류도 기술개발의 부진으로 수출채어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일부상품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소련 루블화의 환율은 공식적으로는 달러, 마르크, 파운드, 프랑, 엔 등 서방 5개국의 긴축통화와 스위스 프랑에 연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책정되는 환율은 실세보다 훨씬 고평가 되어 루블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

환율이 실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수출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은 전혀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련에서는 1987년부터 각기업그룹 및 생산부문에 대해 외화환산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국제상품가격의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부터는 공식환율의 1/2 수준의 레이트를 모든 기업에 일률 적용하고 있으며 1991년에 다시 새로운 레이트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소련 정부는 루블화의 태환성 결여에서 오는 대외무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5년까지 루블화를 교환가능 화폐로 만들 계획이나 현재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결코 용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가격 구조의 왜곡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소련에서는 생산재화의 코스트와 가격이 엄청나게 괴리되어 있다. 즉 원재료 가격은 아주 낮은 반면 가공품의 가격은 대단히 높다. 예를 들어 석유 1톤당 국내 도매가격은 30~35 루블이나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100~120 루블이다. 철스크랩의 1화차당 국내가격은 3,000 루블인데 이를 서방시장에 8,000~9,000 달러에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퍼스날컴퓨터를 산다면 소련시장에서는 10만 루블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상대가격의 엄청난 차이는 공업발전을 왜곡시키고 생산성향상의 인센티브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4.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의 대외무역은 제도의 변화와 경제의 정체에서 오는 혼란과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시장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새로운 시장으로서 또한 우리와는 상

호보완성이 매우 강한시장으로서 커다란 매력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교역은 1981년에 약 3,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1985년에는 1억 달러로 늘어 났고 금년에는 10억 달러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전혀 차질이 없던 소련의 대금지불이 속속 연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국내기업들도 수 천만 달러의 수출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소련진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아직 소련과의 거래경험이 일천하고 관련정보조차 절대부족한 우리기업들이 과연 어떤 방향에서 소련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우선 기초적인 소련경제의 메카니즘과 대외경제관련제도의 변화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련이 비록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획경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가격구조나 유통구조, 상환습 등이 서방세계와는 판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거래방식과 결제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소련은 기본적으로 항시 외화가 부족하며 외채부담도 크기때문에 서방기업의 대소 진출은 은행과 무역상사가 연계하여 진출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대소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를 보전해주는 금융기법을 터득하여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재와 소비재를 연결시키는 식의 양국의 시장수요를 감안한 구상무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소련의 외환사정이 당분간은 호전될 전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현물거래 방식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다음으로는 합작투자를 통해 교역확대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합작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소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열악하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소규모투자자로 경험을 축척하면서 현지시장에 접근해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련시장에의 진출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개혁과 개방이 계속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무한한 경제개발잠재력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요망된다 하겠다.

